

김동인 농어촌공사 신임 전북본부장 임명

한국농어촌공사 신임 전북지역본부장으로 김동인(55) 새만금사업단장이 임명됐다.

그는 농어촌 생산기반정비사업 및 지역개발 분야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업무추진력이 탁월하다는 평이다.

김 본부장은 “전북 농업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기회를 얻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람·자연·기술이 함께하는 농어촌 플랫폼을 구축하여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신임 본부장은 진안군 용담면 출신으로 전주덕진고등학교와 서울대 농업토목학과를 졸업, 전북대학교 석사과정(토목공학)과 건국대학교에서 박사 학위(지역개발, 사회환경시스템공학)를 취득했다. 1995년에 입사한 이래 본사 사업계획처, 전북지역본부 기반사업부장, 무진장지사장, 본사 해외사업처장, 새만금사업단장을 거쳤다.

한편 지난 2년간 전북지역본부를 이끌어온 이정문 본부장은 내년 1월 1일자로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뉴스

우석대 천호준 교수, 한국체육사학회 ‘우수 논문상’

우석대학교 천호준(스포츠지도학과)교수가 한국체육사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통계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황의경의 삶과 한국 아마추어 복싱의 역사 라는 논문을 통해 한국 아마추어 복싱의 역사를 새롭게 정리하고 깊이 있게 서술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한국 아마추어 복싱의 역사와 그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교수는 “제자인 김동수 전주교육대 조교와의 협업을 통해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그 결과가 이렇게 큰 상으로 이어져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관련 연구 수행과 인재 양성에 더욱 더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무주중 3학년 학생들, 무주경찰서에 감사 선물 전달

무주경찰서(서장 박충근)에는 무주중학교 학생들이 최근 연말연시를 맞아 직접 만든 쿠키와 한 글자씩 정성을 담은 편지를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자아냈다.

무주서에 따르면 무주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 안전을 지켜주며 학교폭력 예방에 힘쓰시는 경찰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이다.

실제 학생들은 쿠키와 편지를 가지고 방문하여 졸업을 앞둔 무주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라고 밝히며 “무주를 지켜주시는 경찰관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라고 전했다.

박충근 무주경찰서장은 “편지를 받고 너무 감동했고, 다가오는 새 학기에도 학생들 안전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 교월동 지사협, 천사무료급식소 배식 봉사

김제시 교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조종욱)가 30일 김제 천사무료급식소에서 지역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최현숙 교월동장을 포함한 지사협 협의체 위원 10여명이 참여했으며, 배식과 설거지 봉사활동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왔다.

조종욱 민간위원장은 “평소 천사무료급식소가 매주 3회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데 돕고 싶은 마음이 많았다”며,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도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검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김제시 검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현철)가 30일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실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박현철 위원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위원들이 한마음으로 작은 정성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대 제20대 교수회장에 한상욱 교수 선출

교수권익위원회 상시 운영·교수복지 향상·연구 및 교육 환경 개선 등 공약 내세워

전북대학교 제20대 교수회장에 한상욱 교수(과학교육학부)가 당선됐다.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다.

30일 전북대 교수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전체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 개표결과 한상욱 교수가 차기 교수회장으로 당선됐다. 또한 러닝메이트로 나선 심관섭 교수(동물생명공학과)는 부회장으로 뽑혔다.

한 교수와 심 교수는 공약에서 교수권익 수호와 대학발전을 위해 교수권익위원회의 상시 운영과 교수복지향상, 연구 및 교육 환경 개선, 공정한 총장선거 관리 그리고 대학 자율성 확보 등을 내세워 교수들의 지지를 얻었다.

한 교수는 “교수의 위상 제고와 권익 보호를 위해 교수회장 직할로 ‘교수 권익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고, 협조와 견제 그리고 대안제시를 통해 교수회가 대학 운영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특히 차기 총장선거를 위해 관련 규정을 검토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거점국립대학으로서 대학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거점국립대학교연합회 및 전국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며 “법규나 정부 정책 등에서 학내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



전북대 교수회에 따르면 27일 전체 전임교원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제20대 교수회장에 한상욱 교수(왼쪽)·부회장에 심관섭 교수(오른쪽)가 당선됐다.

은 관련 기관들을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붕어빵 아저씨 김남수씨, 올해도 아름다운 선행

매일 1만원 씩 모아 성금 365만원 성금 기탁

“건강 허락하는 한 이웃 돕는 일 계속 하고파”

“이웃을 돕는 일은 가장 큰 기쁨이고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나눔을 이어가고 싶어요”

30일 익산시청을 찾은 붕어빵 아저씨 김남수씨는 이웃돕기 성금 365만 원을 기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된 후 저소득 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원광대학교 후문 맞은편에서 붕어빵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남수씨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매일 1만 원씩 모아 365만 원을 기부하고 있다. 김남수씨의 아름다운 선행은 10년이 넘게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전하고 있다.

또한 메르스 발병, 산불, 지진, 코로나19 등 사회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나눔을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다.

이 같은 공로로 김남수씨는 지난 9월 열린 ‘제29회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에서 나눔대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인사

전주시청	◇4급 승진 ▲농식품산업과 강병구 ▲회계과 최준범 ▲생활복지과 진교훈
	◇5급 승진 ▲종합경기장개발과 안성자 ▲생활복지과 전용숙 ▲회계과 유소현 ▲교통안전과 정명순 ▲관광정책과 육문주 ▲총무과 정승원 ▲세정과 조배수 ▲신성장산업과 최현미 ▲건강증진과 정숙자 ▲건축과 최용신 ▲기후변화 대응과 조은숙 ▲산림공무원 박진규 ▲환경위생과 김현주 ▲관광산업과 김춘식 ▲종합경기장개발과 유인환 ▲문화정책과 변동현 ▲도시계획과 민용기
	◇6급 승진 ▲회계과 김라영 ▲자원순환과 이운경 ▲도시관정책과 김은솔 ▲체육산업과 조아라 ▲교통정책과 신민수 ▲종합경기장개발과 조해진 ▲재난안전과 유지선 ▲기획예산과 최현광 ▲재난안전과 이광로 ▲농식품산업과 황중연 ▲세정과 양지혜 ▲생활복지과 김영화 ▲생활복지과 홍나희 ▲아동복지과 유지연 ▲도시관정책과 이경연 ▲녹지정원과 오수희 ▲전주동물원 박진규 ▲환경위생과 김현주 ▲덕진보건소 이주현 ▲하천관리과 제창욱 ▲공영개발과 차주성 ▲종합경기장개발과 김보람 ▲체육산업과 문아름 ▲감사담당관 김용훈 ▲수도행정과 강진규 ▲수질관리과 권두욱
김제시청	◇서기관(지방 4급) 승진 ▲기획감사실 김용현 ▲농업정책과 박금남
	◇사무관(지방 5급) 승진 ▲총무과 서정아 ▲회계과 박정완 ▲투자유치과 박선화 ▲미래농업과 박부녀 ▲건강증진

과 김은주 ▲도시과 양기호	
진안군청	◇4급 직급승진 ▲진안읍 박춘선 ◇5급 직위승진 ▲행정지원과 차재철 ▲진안군보건소 국은희 ▲농촌활력과 오재열 ▲건설교통과 노기환
	◇6급 직급승진 ▲사회복지과 정길용 ▲재무과 한정아 ▲관광과 김효식 ▲농축산유통과 한희승 ▲진안군보건소 김진영 ▲진안군보건소 송경주 ▲안전재난과 김규석 ▲행정지원과 공승배
전주농협	◇전주농협 부사장 및 지점장 ▲교육지원실장 박건후 ▲경영지원 본부장 백미란 ▲기획홍보실장 소운선 ▲덕진지점 박양호 ▲풍남문지점 김석균 ▲완산지점 최운정 ▲평화지점 임재석 ▲송천지점 김병연 ▲신성지점 진정숙 ▲서원로지점 정성웅 ▲서신과크지점 최명호 ▲에코행복지점 황인주
	◇팀장 ▲경영지원본부 김종환 ▲기린봉지점 조남순 ▲송천지점 임혜선 ▲마중지점 조종원
	◇과·차장 ▲기획홍보실 서혜영 ▲검사와 구순영 ▲미래지점 류재학 ▲서부지점 박경우 ▲완산지점 이윤석 ▲기린봉지점 전지혜 ▲평화지점 오준영 ▲평화지점 김정아 ▲평화지점 이성숙 ▲호성지점 황혜란 ▲장승로지점 이대진 ▲장승로지점 전소영 ▲서원로지점 이강욱 ▲문화지점 홍상준 ▲서신과크지점 최웅 ▲에코행복지점 이라화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 · 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호지지사 010-8645-98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익산지사 86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성마리오농장, 순창군에 흑염소 진액 기탁

순창군 풍산면에 위치한 성마리오농장(대표 김바오로)가 최근 순창군청을 방문해 2천만원 상당의 흑염소 진액 150박스를 관내 저소득층에 전달해달라며 나눔을 실천했다.

이는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기부로,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

성마리오농장은 지난해 경남 고성에서 순창으로 이전했으며,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나눔 활동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김바오로 대표는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을 잘 챙길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상생하며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매년 따뜻한 관심으로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성마리오농장에 감사드린다”면서, “기탁해 주신 흑염소 가공품은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해 추운 겨울을 건강히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남원 송동면, 연말연시 나눔의 손길 잇따라

남원시 송동면에 연말연시를 맞아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태성한돈에서 라면 52박스(환가액 151만80원), 새남원 영농조합법인 50만원, 연산농장 50만원을 기부하며 나눔 실천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름을 바치지 않은 한 익명의 기부천사는 송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1,000만원을 기탁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한 마음을 전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기부 릴레이에 참여해 400만원을 전달했다.

송동면 보장협의체는 “공공복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노일환 송동면장은 “기탁해 주신 후원 물품과 성금은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금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남원시 금동은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 위해 금동행정복지센터에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금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가 되는 조직으로 28명의 위원들이 그동안 더불어 잘 사는 금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성금은 실시일반 위원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마련하였다.

최재우 위원장은 “우리의 작은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파스함으로 전달되었기를 바란다”라고 했으며, 노현순 동장은 “지역을 위한 관심을 갖는다며, 지원금은 어려운 생활임에도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 주천면 지사협, 무료 영화 상영

진안군 주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30일 주천면 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 지역 주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코믹영화 ‘헐스 가이즈’를 상영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 영화관 가기가 어려운 어르신 등 주민들에게 문화격차 해소와 주민화합을 위해 주천면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로 추진했다.

이날 주천면 지역이동센터에서는 팝콘과 와플을 준비해 진짜 영화관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고, 주천면 행정복지센터도 흥산대추차와 과자를 준비하는 등 따뜻한 마음을 더했다.

강당에 참석한 주민들은 영화관람은 물론 서로의 인부를 물으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한 어르신은 “영화관에 가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상영시간 내내 이웃과 함께 웃을 수 있어서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며 감사워했다.

/진안=우태만 기자